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투자 정보 가이드

변액보험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카디프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해보세요!

CARDIF GUIDE <2019.4>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 본 자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제공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투자결과에 대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9-054호(2019.4.4)

01

국내 주식

정책적 우호적 환경 가운데 수급 이슈 부담

- 단기: KOSPI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스탠스에 우상향. 위안화 강세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우호적. 다만 MSCI 비중 변경 등 수급 이슈는 부담인 상황
- 중기: KOSPI의 밸류에이션 매력과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미중 무역분쟁 해결 기대감 등은 신중국 자산 선호심리 높여 KOSPI 레벨 높일 전망. 다만 글로벌 무역량 감소 트렌드와 수급 이슈가 여전하기 때문에 상단은 제한될 전망

03

선진국 주식

경기 둔화 우려에 낮아진 상승 탄력

- 미국: 유로존 등 대외 및 대내 경기 둔화 부담과 무역 협상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로 증시 하단 지지. 경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견조하지만 상승 탄력이 약해지며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기업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 흐름 중. 증시 상승에 대한 강한 방향성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
- 유럽: ECB는 3월 회의에서 3차 TLTRO 시행 방침 등 비둘기파적 스탠스 확인. 이 과정에서 성장을 전망을 큰 폭 하향 조정하여 경기 부진 장기화 우려를 자극. 다만 일시적 요인을 고려하면 경기의 추가 악화보다는 기저효과에 힘입은 반등 가능성이 높음. 여타 선진증시와 비슷한 수준의 증시 흐름 예상

05

해외 채권

견조한 고용 여건에 따라 제한된 상승 전망

- 상반기 중 mini-cycle상 경기 저점 형성이 예상되며, 견조한 고용 여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 시 완만한 금리 상승세 재개될 전망. 다만 미중 무역분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이슈가 빈번하게 부상 가능한 만큼 상단 제한 가능

02

국내 채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박스권 등락 흐름

- 단기: ECB와 연준을 비롯해 글로벌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선회 중. 반면 한은은 현 기준금리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표 부진이 지속되면 경기부양책의 우선순위는 추경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동결될 전망. 금리인하 기대감과 기준금리 동결 결정 상충으로 채권시장은 약보합 장세 예상
- 중기: 2분기 중 대내외 경기의 순환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적과 2분기 중 추경 논의 본격화 등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 높음. 향후 6개월간 채권시장은 금리상단과 하단이 낮아진 박스권 등락 흐름 예상

04

신중국 주식

정책 기대감이 신중국 주가에 우호적

- 인도: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인도 주가지수의 우호적인 시각은 지속될 전망. 5월 있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
- 중국: 미중 무역분쟁 이슈 완화와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상해증시 우상향. 향후 미중 무역분쟁 협상 결과와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 효과에 관심.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주식시장에 우호적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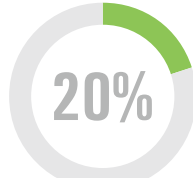
원자재

수급 균형과 달러화 강세 완화가 원자재에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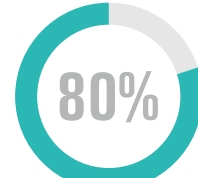
- 에너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의 충실한 감산 이행과 미중 무역분쟁 합의 기대감, 연준의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에 유가는 견조한 흐름. 사우디의 원유 시장 정상화 의지에 수급 균형 보이며 우상향 지속될 전망
- 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실질금리 하락에 금 가격은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 달러화 강세 완화도 금 가격에 우호적.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하락은 금 가격에 부정적

안정추구형 투자자

투자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래도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마음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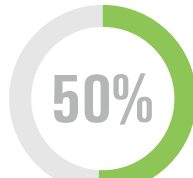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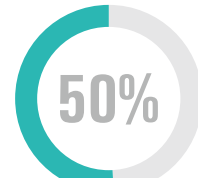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위험중립형 투자자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객입니다. 고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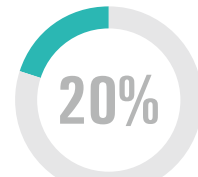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성장추구형 투자자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국내	주식	=	KOSPI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스탠스에 우상향. 위안화 강세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중국 증시와 동행성 높은 KOSPI에 우호적. 다만 MSCI 비중 변경 등 수급 이슈는 부담	밸류에이션 매력과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미중 무역분쟁 해결 기대감 등은 신흥국 자산 선호심리를 높여 KOSPI 레벨 높일 전망. 다만 글로벌 무역량 감소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고, 수급 이슈도 여전하기 때문에 상단은 제한될 전망
	채권	-	ECB와 연준을 비롯해 글로벌 통화정책은 전반적으로 완화적으로 선회 중. 반면 1) 한은은 지금의 기준금리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2) 지표부진이 지속될 경우 경기부양책의 우선순위는 금리인하보다는 추경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4월에도 국내 기준금리는 동결될 전망. 금리인하 기대감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상충되며 4월 채권시장은 약보합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당분간 주요국 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연준이 하향조정된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금리동결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준금리인하 기대감이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2분기 중 대내외 경기의 순환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적과 2분기 중 추경 논의 본격화 등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음. 향후 6개월간 채권시장은 금리상단과 하단이 낮은 박스권 등락 흐름 예상
해외선진	미국	=	유로존 등 대외 및 대내 경기 둔화 부담과 무역 협상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비둘기파적 제스처에 힘입어 증시 하단 지지. 미국의 경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견조하지만 상승 탄력이 약해지며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함. 기업 실적 전망 역시 하향 조정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증시 상승에 대한 강한 방향성 베팅 쉽지 않은 상황	연준의 비둘기파적 제스처로 추가 하단이 방어되고 있지만 연초 이후 가격 랠리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진 점은 부담. 미국증시 밸류에이션이 16배까지 올라온 데다 재정 및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중립 의견 유지
	유럽	=	ECB는 3월 회의에서 3차 TLTRO 시행 방침 등 비둘기파적 스탠스 확인. 이 과정에서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역내 경기 부진 장기화 우려 자극. 최근 역내 서베이 지표는 다소 엇갈리는 흐름. 다만 일시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경기의 추가 악화보다는 기저효과에 힘입은 반등 가능성이 높음. 여타 선진증시와 비슷한 수준의 증시 흐름 예상	중국 등 신흥국에 이어 유로존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BREXIT와 스페인 총선 등 정치 이벤트와 경기 회복 강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 유럽 증시에 대한 중립 의견 유지
	일본	=	무역 분쟁 여파 속에 수출 경기 악화 부담은 존재하나 대내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 중. 지난해 말 엔화 강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기업 이익 전망은 여전히 하향 조정 흐름. 10월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지난 2014년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요인	최근 엔/달러 환율은 대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 글로벌 정치 및 정책 불확실성이 재부상하는 과정에서 엔화 강세 재개 가능. 소비세율 인상 영향 등을 고려해 일본증시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

* 투자매력도 : + 확대, = 중립, - 축소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해외이머징	브라질	=	친시장 성향의 보우소나루 정부의 향후 친기업, 연금개혁 등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음. 다만 주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후 구체적인 정책에 주목할 필요	보우소나루 정부에 대한 향후 시장 개방 및 연금 개혁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이나, 점차 구체적인 정책에 주목할 필요.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분 반영되었다는 점은 부담
	러시아	=	최근 유가 반등에 러시아 증시에 대한 매력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연준의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 완화도 달러화에 민감한 러시아 증시에 우호적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완화된에 따라 달러화에 민감한 이머징 증시 상승 지속될 전망. 또한, 글로벌 원유 수급 개선 전망에 러시아 증시는 완만한 우상향 전망
	인도	=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인도 주가지수의 우호적인 시각은 지속될 전망. 5월 있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	인도의 견조한 경제 성장 전망은 주식시장을 지지. 5월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이 승리할 경우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친기업 정책 기대감에 주가 더욱 상승할 전망
	아세안	=	최근 달러화 강세 완화와 위험자산 선호 확대에 주가 완만한 우상향 전망. 중국 증시 호조에 따른 EM Asia 국가들의 동반 상승도 긍정적. 다만 글로벌 무역 둔화 우려는 부정적 요인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와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 완화,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대는 긍정적. 글로벌 금융환경 완화는 대외환경에 민감한 ASEAN 주식시장에 우호적
해외이머징	중국	=	미중 무역분쟁 이슈 완화와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상해증시 우상향. 향후 미중 무역분쟁 협상 결과와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 효과에 관심.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주식시장에 우호적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과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 중국 정부의 강도높은 경기 부양책 전망에 중국 주식시장은 우상향 전망. 다만 미중 무역분쟁 협상 결과가 향후 시장 방향성에 중요
	홍콩	=	미중 무역분쟁 우려 완화와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에 홍콩에도 우상향 지속될 전망. 다만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일이 점차 미뤄지는 가운데 노이즈 발생시 변동성 확대 가능	미중 협상 타결 및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은 긍정적이나 중국 경제지표 부진은 우려. 부정적인 협상 결과나 경기부양책 효과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변동성 확대 전망
해외채권	채권	=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서면서 시장금리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두드러지는 상황. 다만 연내 금리 인하 전망까지 반영하고 있는 현재 금리 수준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	상반기 중 mini-cycle상 경기 저점 형성 예상되며 견조한 고용 여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 고려 시 완만한 금리 상승세 재개될 전망. 다만 미중 무역분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이슈가 빈번하게 부상 가능한 만큼 상당 제한 가능
대체투자	유가	=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의 충실한 감산 이행과 미중 무역분쟁 합의 기대감, 연준의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에 따른 달러화 약세에 유가 견조한 흐름. 사우디의 원유 시장 정상화 의지에 수급 균형 보이며 유가 우상향 지속될 전망	사우디의 원유 시장 정상화 의지와 미중 무역분쟁 완화에 따른 수요측 우려 완화, 베네수엘라 및 이란의 원유 공급 축소 등에 유가 상승 지속될 전망.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전망도 유가에 긍정적
	금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실질금리 하락에 금 가격은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 달러화 강세 완화도 금 가격에 우호적.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하락은 금 가격에 부정적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금리 하락은 이어질 전망. 이는 금 가격에 우호적.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하락 및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금 가격 상당 제한할 것

* 투자매력도 : + 확대, = 중립, - 축소

EUROSTOXX50 지수

3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전망을 예상치보다 하락한 각각 1.1%, 1.2%로 제시하였고, 연말까지 저금리 기조 유지 및 TLTRO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브렉시트 연장안이 가결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PMI는 작년 상반기부터 지속적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기준선인 50에 근접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브렉시트 혼란이 가중되면 유로존 경제 반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S&P500 지수

3월 미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로 동결 결정하였습니다.

연내 추가 금리인상은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며, 그동안 유동성을 옥죄었던 자산 긴축정책을 올해 9월부로 조기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완화적인 비둘기파적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런 비둘기파적인 조치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체되면서 경기둔화우려가 커진 것에 기인합니다. 발표 직후 S&P500은 미 국채금리 하락 영향으로 은행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HSCEI 지수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경기의 둔화 조짐이 관찰되어 올해 1~2월 실물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치는 낮았으나, 실제로 발표된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정자산투자 6.1% 증가,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도 전월비 증가 폭이 확대되었고, 1~2월 소매판매도 8.2%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생산은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진행된 중국 정부의 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심리지표 및 선행지표의 반등을 이끈 것으로 해석되며 정책 효과의 실질적 가시화는 다음 분기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공: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어려운 용어... 한숨 쉬지 말고, 쉽게 알아보아요!

밸류에이션(Valuation)?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평가 가치를 이야기하며, 주식의 경우 PER(주가-순이익 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가치 비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산업 군 안에서도 순이익 규모나 순자산 가치에 비하여 특정 주식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TLTRO(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 TLTRO란, 민간부문의 신용 상태를 개선하고 실물경제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중은행에 장기 저리 대출을 융통함으로써 민간 영역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유발하는 통화부양책입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 파악

이번 달 핫이슈 및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참고

STEP 01

나에게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STEP 02

펀드 관리

수익률 관리,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기능 활용

STEP 03

🔄 펀드 변경 안내

변경 유형



적립비율 변경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적립비율을 변경



투입비율 변경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적립비율+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과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변경 방법



My Cardif

홈페이지 : www.cardif.co.kr
APP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디프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검색



전화

콜센터 : 1688-1118



은행/보험사 방문

보험상품 판매사 **지점** 또는 **보험사 직접 방문**

기준일 「펀드 변경 요구일 +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
*영업일 기준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연 12회 이내 가능

수수료 없음(다만, 차후 약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변액보험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 계약은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